



環境文化人으로서의 矜持를 드높이자

安 基 熙
(國際環境問題研究所長)

環境文化人이란 環境文化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기존의 文化秩序에 도전하여 새로운 環境秩序를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일컫는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經濟成長의 눈금이 올라가는 흥분에 도취되어 環境文化를 外面함으로서 環境問題가 深化되고 있는 오늘날! 光復前, 먼 異國땅 「센프란시스코」에서 祖國을 잃어버려 실의에 빠진 民衆속으로 뛰어 들어 環境文化 暢達에 선구적 역할을 하신 분의 위대한 指導性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어느 美國 企業家は 자기 집에 세를 놓아 사는 韓國人들의 生活環境의 급격한 변화를 지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네 나라에서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온 모양이요. 그러기에 몇달 동안에 당신네들 生活環境이 놀랍게 변한게 아니겠오.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는 이렇게 안 될 것이요.”

“島山 安昌浩先生 덕분이오.”

“1년간 지도로 이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면 필시 탁월한 人物이리다. 나 그분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얼마 후 島山을 만나 본 美國人은 26세 밖에 안되는 새파란 청년에 감복되어 자기집에 세들은 韓國人의 집세를 헐하게 받는다 하면 韓國人들이 모이기 위한 會館을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까지 베풀었다.

이것은 島山이 당시 동포들의 生活環境이 거의 야만인에 가까운 형편임을 통감하고 「우리 동포들이 環境文化를 올바르게 누리지 못함은 우리 大韓의 수치요 곧 나의 수치다. 美國인들이 우리

를 야만인으로 보고 韓國을 독립할 자격이 없다고 낙인 찍을 것이 아닌가. 이들을 잘 지도하여 美國人들에게도 모범이 되게 해야만 美國이 韓國의 독립할 자격을 내외에 알릴 수 있으리라」고 한 결심 때문이었다.

한 지도자의 環境文化의 暢達을 위한 선구적 지도성의 역할을 學問이나 스포츠 또는 총칼보다 훨씬 더 값지고 절실한 교훈으로 오늘날 새삼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島山이 祖國을 등지고 「去國歌」를 부르면서 美國으로 떠날 때 西洋商船의 선원들이 우리 나라를 드나 들면서 남긴 말 중에 「惡臭十里」란 말이 있다. 韓國에는 上陸하기 전 十里밖에서부터 교약한 냄새가 난다는 말이다.

시대는 달라도 오늘날 이 惡臭十里란 말이 우리 生活環境에서 완전히 사라졌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멕시코가 우리 보다 먼저 올림픽을 치루고 惡臭과 먼지 때문에 큰 망신을 당했다는 당시의 外信報導는 큰 大祭典을 앞둔 우리의 周邊環境을 한번 더 돌아 보지 않으면 안되게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자란 環境을 生涯의 尺度로 삼으려 한다. 그래서 이러한 自然環境遺産을 일러 어머니에 비유하면서 母國이라 부르고 있다. 자기를 낳아 준 자만이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의 피와 잔뚱을 길러 준 祖國의 山河를 어머니의 땃줄이라 부르며 어머니의 어머니라 부른다.

청년 張勳을 美國에 떠나 보내면서 祖父께서 손자에게 큰 선물을 전해주면서 美國에 가서

퍼 보라고 일렀다. 가서 퍼 본 결과 선물내용은 祖國냄새가 물씬 풍기는 흙덩이였다. 외롭거나 향수에 젖을 때마다 고향의 흙냄새를 맡으면서救國一念으로 學問에 정진한 결과 부통령을 거쳐 民主黨 시절의 내각 수반직에 까지 오르게 되었다면서 그 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다고 슬회하고 있다.

한편 光復이 되어 祖國의 품으로 돌아온 애국지사들은 인천 부두에 내리자마자 「그리운 祖國의 땅 내 祖國」이라면서 얼굴을 땅에 부비면서 한을 토했다.

詩人は 詩人대로 빼앗긴 祖國들판의 가르마 같은 논길을 밟아 시리도록 밟아보고 싶다고 외쳤다.

祖國을 떠난 이들이 한결같이 祖國을 위대한 어머니의 품안과 같은 위치에 두고 그리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맑은 하늘, 청정한 물, 깨끗한 땅, 수려한 자연경관과 숲 등의 環境資源을 두고 두고 떠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祖國의 環境資源이 근래에 들어 都市化와 産業化의 급격한 과정에서 크게 汚染되거나 破壞되어 環境文化인들의 가슴을 계속 조이고 있다.

지금 세계의 새로운 文化의 물결은 1972년의 UN人間環境宣言과 1982년의 UN총회의 세계 자연현장의 선언을 고비로 종래의 經濟優先의 文化에서 環境文化의 質을 추구하는 環境倫理觀의 확립으로 서서히 轉換되고 있다. 즉, 한 나라의 국력신장은 결코 經濟成長의 수치만으로 이룩되지 않고 쾌적한 環境資源의 근간으로 이루어 진다는 사실의 중요성 때문이다.

지난해 수입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물이 프랑스, 일본, 캐나다등지에서 1만2천달러 어치나 수입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공기와 흙과 수려한 자연경관도 수입해 올 수 있단 말인가!

韓國의 일은 韓國人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鳥山은 일찌기 祖國을 빼앗긴 異國 하늘 아래서 제일 먼저 環境改善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指導者의 資質을 양성한 것이다. 1913년에

제정된 「興土團約法」의 前文에 「사람은 環境을 改善 創造하는 원동력을 가졌다」고 강조하고, 제 5 조에서는 務實力行의 精神으로 각종 文化事業과 關係하여 모범 부락등을 지정하여 環境改善을 實踐할 것을 公約化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憲法의 環境權의 明文化와 環境廳의 創設등으로 새로운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다.

祖國이 外侵으로 危機에 처했을 때 애국지사들의 눈부신 指導性이 의연히 일어 났듯이, 祖國이 環境危機에 처한 오늘날 우리들의 젖줄인 山河들 살리려는 環境文化運動의 展開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연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政府의 環境長期政策의 제시, 企業人의 自然 혹사에 대한 깊은 反省, 住民의 자연이용에 대한 절제와 인내등으로 인한, 한 集團內部를 拘束하는 環境文化의 확립은 경제성장에 비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 모두 經濟成長에 쏟은 力으로 다시 한번 環境文化人으로서 矜持를 世界萬邦에 드높이자.

「惡臭十里」대신 「香氣十里」란 말이 들릴 때까지..... *

環境保全상담안내

社団法人 環境保全協會에서는 環境保全에 관한 技術指導 및 啓蒙事業의 一環으로 「環境保全相談室」을 設置運營하고 있는바 本相談室에서는 政府施策弘報, 關係法令解説, 公害防止關聯技術相談, 自家測定方法指導, 其他 建議 및 陰路問題相談등을 無料實施하고 있어 오니 많은 活用을 바랍니다.

상담실 전화번호 (753) 7640 (753) 7669
(754) 5836

社団法人 環境保全協會

알림